



탄소중립 평화나무심기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식목을 하고 있다.

파주시 제공

평화나무 심어 남북관계 회복 물꼬 튼다

파주 남북산림협력센터, 나무심기 행사

4·27 판문점선언 3주년 기념 숲 조성
임농복합시범지, 경제수·유실수 심어

26일 파주시 탄현면에 소재한 남북산림협력센터(이하 센터)에서 탄소중립 평화의 나무심기 행사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산림청에서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을 기념하고, 평화의 숲을 조성해 한반도 산림생태계를 복원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나무를 많이 심어 탄소의 배출과 흡수의 중립 상태를 만들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또한 남북산림협력력은 비정치적인 분야로 남

북관계 경색 시 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고, 남북이 함께 ‘평화의 숲’으로 하나 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함이다.

이번 식목에는 최종환 파주시장을 비롯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 최병암 산림청장,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윤후덕 의원, 박정 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센터 내 준비된 임농복합 시범지에 경제수와 유실수 250본을 식재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4·27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 공동의 평화를 향한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더욱 단단하게 다져가는 일”이라며 “산림협력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우선 사업으로 선정된 바, 한반도 생태계 복원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연식 기자

태조 왕건이 살던 옛 고려궁터 남북 공동발굴한 성과 한눈에

경기도박물관 '...만월대에 오르다'展 6월 27일까지 옛 개경사진 등 전시
출토 유물 3D로 복원 일반에 공개

조선시대 '폐허가 된 고려궁터'를 부른 이름, 만월대(萬月臺). 지난 2007년부터 12년간 남북한 공동발굴조사의 성과를 되새기며, 고려시대 선조들의 수준 높은 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린다.

경기도박물관(관장 김성환)이 28일부터 오는 6월 27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하는 '고려궁터 개성 만월대에 오르다'展이 그것.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경기도박물관이 남북문화협력의 중요성을 알리고 고려역사문화



경기도박물관의 '고려궁터 개성 만월대에 오르다' 특별전에서 선보이는 '태평명 화기'. 경기도문화재단 제공



경기도박물관 전경.

경기도박물관 송배이지 전시

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한 이번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 '고려수도 개경과 만월대'에선 태조 왕건의 근거지였던 고려 수도 개경의 입지와 도시구조를 조망한다. 김홍도가 그린 '기묘세련계도(奇妙世련契圖)' 영상과 강세황의 '송도기행담, 100년 전의 만월대 사진, 시와 노래 등을 통해 옛 개경과 만월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2부는 '현금의 기억'으로 8차례에 걸친 남북한 만월대 공동 발굴조사 과정과 뒷이야기 등을 사진과 만화를 통해 보여준다.

▲3부는 고려궁터의 모습과 출토유물을 3D홀로그램, 3D복원영상, 복제유물 등 다양한 디지털 자료로 재현한 '만월대를 누비다'이다. 문헌기록상의 실체가 밝혀진 경명전 모형과 고려 태조 왕건상을 영상으로 선보인다. ▲마지막

4부 '등업을 꿈꾸다'는 남북 북이 함께 한 시공간을 보여주는 영상과 사진으로 꾸며졌다.

이전의 학에서는 '만월대에서 출토된 유물은 북한에 있지만, 실제 출토유물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참고 유물을 함께 전시해 수준 높은 고려문화를 느껴볼 수 있도록 했다'며, "금속 할자 6점을 3D스캔 데이터를 이용한, 실물크기의 금속재질로 만든 복제품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고려 왕실도자의 생산지였던 강선 사당리 가마터의 '청기와'와 '담두'는 고려궁터의 세련된 건축술을 엿볼 수 있는 유물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고려 공민왕 아뢰 폐허로 남아 있던 '만월대'는 남북한 공동발굴조사 이후 40여 동의 건물터와 금속할자, 고려청자, 명문기와 등 만



경기도박물관의 '고려궁터 개성 만월대에 오르다' 특별전에서 선보이는 '담두'. 경기도문화재단 제공

3000여 점에 달하는 유물들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왕실과 귀족, 권료들의 화려한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수백여 점의 고려청자 편과 세련된 건축술을 보여주는 다양한 종류의 가와, 세계 최초 금속할자가 출토되기도 했다.

'만월대'는 북한국보유적 제122호로 지정돼 있으며, 이를 포함한 개성의사유적지구는 2013년 제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전시 관람은 무료.

경명각 기지